

구례군, 국제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위상 높인다”

베트남 다낭 도시 협력 포럼 참석 MICE·골프 관광상품 등 개발 논의 선짜郡과 문화·경제 협력기반 마련 “지속 교류 통해 관광도시로 발전”

구례군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도시 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뛰어 들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과 군 관광산업의 글로벌 진출 등 실질적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군수를 포함한 구례군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2025 다낭 도시 협력 포럼’에 참석해 MICE 관광, 골프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관광 산업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 연사들과 의견 교환을 이어가며 국제 사회에

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구례군 대표단은 다낭시 인민위원회 관계자, 세계 각국 연사들과의 만찬과 예술 교류 행사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도 강화했다.

특히 김 군수는 다낭시 선짜군 황선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정 나무를 심으며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구례군과 다낭시 선짜군은 지난해 1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군수는 황선짜 위원장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오늘 심은 이 나무는 구례군과 선짜군의 오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양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구례군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짜군과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구례군 대표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2025 다낭 도시 협력 포럼’에 참석해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례군 제공

이날 구례군 공연단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선보여 다낭 현지인들과 세계 각국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우호 협력 도시 전시회에서 구례군 특산품을 전시해 구례의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하기도 했다.

구례군은 이번 다낭 도시 협력 포럼 참석을 통해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

다. 김 군수는 “이번 다낭 도시 협력 포럼은 구례군의 국제 교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구례군과 다낭시, 구례군과 다낭시 선짜군과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례를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실외 공공체육시설’ 무료 개방 순천시, 설 연휴기간 동안

순천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방되는 체육시설은 팔마경기장(축구, 족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국궁), 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조곡생활체육공원(축구, 게이트볼), 상사경기장(축구, 풋살, 족구)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누구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자는 최대 2시간까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운동 장비 착용과 경기장 내 물·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여수시, 연중 무료 지원

여수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퇴비 더미 5~10군데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혼합한 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061-659-4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단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여수=이경기 기자

‘영락공원’ 운영 시간 연장 여수시, 온라인 성묘서비스 지원도

여수시는 성묘객이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영락공원 추모의 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28일과 29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영락공원 내 장사시설(화장)은 설 당일(1월29일)만 휴무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한다. 추모의 집 2개소 ‘제례단’은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시 중단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지원한다. e하늘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통해 ‘추모관 만들기(영정사진 및 사진·영상 등록, 차례 지내기, 지방쓰기, 헌화 등)’, ‘추모글 남기기’ 등 기능을 제공한다.

시는 영락공원 이용 시 최근 독감 유행에 따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며, 일회용품 및 조화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겨울에 미리” 모기 유충구제 작업

730여개 정확조·직관로 대상

고흥군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여름철 모기 매개체를 최소화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유충구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유충구제 사업을 통해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최소화했으며, 보건소와 읍면 방역지원단, 마을 자율방역단 등을 동원해 계절별 맞춤 방역소독을 1만2428회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위해 정확조,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집중 유충구제 방역을 시행하고, 유충 서식지 기록과 주기적 관찰로 체계적인 유충구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겨울철 유충구제 방역은 밀폐된 정확조, 하수구, 고인 물 등에 1월부터 오는 3월 중순까지 2회 유충 구제제를 투여해

유충이 알에서 깨어나는 3월부터 5월 전 모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모기 유충 1마리를 제거하면 모기 성충 500마리 이상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분무·연무 소독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3월부터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 유충구제 방역 장소에서 성충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대형 건물, 주택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성충 구제와 유충구제 작업을 병행해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세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유충구제가 더욱 중요하다”며 “겨울철 유충구제 방역을 통해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이 겨울철 모기 매개체를 최소화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유충구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흥군 제공

“일상 불편, 빨간자전거가 해결해 드립니다”

고흥군, 맞춤형 민원복지 추진 집배원·마을이장이 민원 해결

고흥군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사항을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흥우체국 및 마을이장과 연계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2025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 온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집배원과 마을이장이 주민의 생활불편과 위험사항 등을 제보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사항 제보 처리 △취약계층 생활실태 파악 제보(복지서비스 연동) △거동불편 대상자 민원서류 배달 등이

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건당 300만원 이하의 작은 규모이지만, 주민들의 시급한 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빨간자전거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과 위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여년간 맨홀뚜껑 정비, 안길·농로 포트홀 보수, 위험 난간 설치 등 2520여건에 35억원의 투입해 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 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 코디네이터·도슨트 기획 등 ‘청년 선호 일자리’ 대폭 확대

보성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하나로 21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총 21개 사업에 35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진관, 메타세쿼이아길, 중수문 생태공원 등 관광지 정비와 보성체육공원, 벌교생태공원 등 문화생활공간 정비, 지역내 환경정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보성군 청년센터와 BS청년마켓, 제암산자연휴양림에 각각 청년

코디네이터를 모집하고 한국차박물관에 청년 도슨트 기획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년이 관심 있어 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의 보성군민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소득, 재산, 기타 자격요건 등을 종합 평가해 2월 말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조획과 일자리공동체팀(061-850-5981)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양종수 기자